

푸른 뉘, 그 모습 그 자리에

이 구 상(의식개발연구소장)

.....

참인간은 곧 신인(神人)
영원, 불괴, 불멸의 영체(靈體)이며
물질로 만들어 놓은 기계가 아니다.
또한, 물질이 먼저 있어 거기에 영인 깃든 것도 아니다.
그런 이원론(二元論)은 모두 잘못된 생각이니라.
오히려 물질은 영의 그림자, 마음의 산물임이
마치 고치가 먼저 있어 누에가 그 속에 깃드는 것이 아니라
누에가 먼저 실을 토하여 고치를 만들고
그 고치 속에 누에가 스스로 깃듬과 같다.
인간의 참성품은 먼저 영인 생명으로서
생명이 마음의 실을 엮어 육체의 고치를 만들고
그 고치 속에 스스로 자기의 영을 깃들게 하여
비로소 영, 곧 말씀은 육체로 되느니라.
분명히 알라. 누에는 고치가 아니라
그와 같이 육체는 인간이 아니며, 인간의 고치에 불과하다.
때가 오면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비되어 하늘로 오르듯,
인간도 육체의 고치를 뚫고 영계(靈界)로 승천하리라.
너희들, 결코 육체의 사멸을 가리켜 인간의 죽음이라 하지 말라.
인간은 생명이니 한결같이 죽음을 모른다.
마음의 생각에 따라 육체와 환경에 온갖 상태를 지어내지만,
생명, 그것은 앓는 것이 아니요, 생명,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며, 마음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능히 너희들의 건강과
환경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들 마침내 생명은 육체의 고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오리라.
그때 생명은 육체의 고치를 뚫고 한층 더 자유로운 경지로 날아오르리라.
이를 두고 인간의 죽음이라 하지 말라. 인간의 본체는 생명이니 한결같이 죽는 일 없느니라...

‘감로(甘露)의 법우(法雨)’ 중에서

푸른 뫼(翠山) 박영철!

평소 그가 즐겨 소리내어 읽던 '감로(甘露)의 법우(法雨)'가 잔잔히 울려퍼지는 가운데 9월 9일 오전 10시, 전주시 효자 장례식장에 마련된 조출한 빈소에는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그와 정을 나눈 벗들이 함께 한 가운데 영결식이 거행되었다.

벽에 걸린 그의 영정은 생전의 그 모습 그대로 밝고 따스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9월 7일 오전 10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쉼터였던 전주 '한마음 병원'에서 큰딸 정은양(미국 거주, 공무원)과 그의 손발이 되어준 전주의 젊은 벗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시신은 그의 뜻대로 화장되어 그가 한때 마음의 고향으로 느끼고 살았던 전북 정읍의 가족 묘소에 뿌려졌다. 그는 임종 며칠 전부터 이 생의 삶을 마감할 것을 의도한 듯 필자를 비롯한 몇몇 벗들의 꿈(?) 속에서의 만남을 통해 작별인사를 나누었음이 확인되었다.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은 그의 삶의 역정을 말해주듯 그가 관심을 기울인 일로 인연을 맺은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미내사클럽 발족 직후에 알게 된 광노순 목사를 비롯, 지금여기 편집위원이며 출판 신과학 심포지엄 운영위원을 맡아온 방건웅 박사, 김재수 박사, 홍용자(KBS연수원), 전홍준 교수, 박찬익씨(아바타 마스터) 등 그에 의해 이 땅에 처음 소개된 아바타 프로그램의 이수자 및 아바타 마스터들, 그리고 TM(초월명상)을 함께 해온 고준환 교수, 박준수 판사, 채태병 변호사, 조정진씨(전 삼양사 이사), 그에게 정신세계 탐구의 등대역할을 해준 '생명의 실상' 독자 모임의 전재홍씨(유나캠 대표), 홍운덕씨(한미은행 차장), 정신세계사 창립기부터 인연을 맺어 온 송순현 원장, 그리고 그의 쾌유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강신무씨를 비롯한 선인문 가족 등이 빈소를 지켰다.

필자와 첫인연을 맺은 70년대 말을 기준으로 취산의 아름다운 생애를, 짧고도 긴 그의 발자취를 되살펴 보고자 한다.

청년기에 겪은 6. 25 전쟁

'꿈꾸는 만년 소년' 취산의 본명은 박영철(朴泳澈)이다. 그는 일제 때인 1926년, 평북 강계에서 비교적 살림이 넉넉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마을의 소학교를 거쳐 그는 강계 중학교를 진학하게 되는데, 이른바 그의 '학력'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다.

평소 지난 일이나 신변에 관해 말하기를 극히 꺼려했던 그였기에, 20년 지기인 필자마저도 그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의 행적에 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다.

다만 그가 태어나 청년으로 성장할 무렵은 일제에서 6. 25동란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절이었다.

소년 영철은 별로 말이 없는, 아무 음식이나 잘 먹지 못하는 좀 까다로운 성격의 아이였지만, 무척 영특하여 학교 공부는 잘 하는 편이었다. 특히 수학에 소질이 있었다.

필자가 들은 소년기의 에피소드 한 토막.

"중학교 때인데 말이지, 하루는 우두머리 노릇을 하던 상급 학년이 내또래의 아이들을 불러모아 놓고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어. 중간에 끼어 들어보니까 문제 풀이를 하는데, 이걸 순 엉터리였어, 그게 아니라고 나

도 모르게 참견을 하고 말았지. 무안해 얼굴이 붉어진 그가 마구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데, 야! 정말 별이 번쩍하더군. 정말 돼지게 맞았어야.”

잘난 척 하지는 않지만, 잘못된 것을 그냥 보고 넘기지 못하는 그의 성격의 단면이 나타나는 대목이다.

혼자서 무얼 곰곰히 생각하거나 책읽기를 좋아했던 청년 영철은 책이 무척 귀했던 때여서 어렵게 구하거나 빌린 책들은 주로 일본어로 된 사상서, 또는 오래된 과학기술서적이 고작이었다. 또한 그는 영어로 된 만화책이나 낡은 문고판 잡지류를 보면서 혼자서 영어를 익히는데 몰두했다. 그의 영어 독해능력은 이때부터 길러진 셈이다. 그런데, 그때 읽은 이른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서적들은 20대 청년의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신념으로 깊게 주입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배경에서 20대의 어엿한 청년이 된 영철은 20대 초반에 38선을 넘어와 서울에 정착했다. 좌우익의 이념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당시의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한마디로 뒤죽박죽이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모든 부분이 제자리를 잃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다.

그는 당시의 그의 처지를 한 잡지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취산처럼 똑똑한 이가 왜 이렇게 못사느냐 말이지. 입을 옷이 없어서 외출도 못하고 버스비가 없어서 버스도 못타고, 쌀독에서는 맨날 박박 바가지 굵는 소리만 나고, 똥이가 이러냐. 사회의 모순이다. 그렇게 생각했더랬어야!”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서울에서 6. 25동란을 맞게 된다. 미처 피난을 하지 못한 그는 인민군에 의해 북쪽으로 끌려갔으나 덕소 부근에서 한밤중에 극적인 탈출을 시도, 가족들에게 돌아왔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모색했던 그는 친척의 주선으로 당시 서해지역에서 첩보업무를 수행했던 미군 특수부대의 통역자로 ‘반군반민(反軍反民)’의 신분으로 미군부대 생활을 하게 되었다. 혼자서 쌓은 영어 실력 덕분에 그에게 이런 일자리가 생긴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살아남았다. 그런데 훗날 그의 미군부대 전력이 누군가의 모함에 의해 밀고되어 ‘이중간첩’으로 누명을 쓴 채 대구 교도소에서 3년 동안 옥고를 치르는 경험을 하게 된다.

“너무도 황당했었지. 죄없음을 증명할 사람들이 전사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결백을 주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어.”

당시 교도소에서 겪은 형언할 수 없는 고초는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지만, 그의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필자는 짐작하고 있다.

자유의 몸이 된 그는 당시 알고 지내던 어느 스님의 소개로 불교종단에서 운영하던 고아원에서 원아들을 돌보면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런 어느 날 이 고아원을 도와주던 한 미군 장교가 그에게 책 두 권을 읽어보라고 권했다. 그중 한 권이 골드 스미스(Gold Smith)의 어록이었다.

정신세계 입문의 길잡이 골드 스미스

그 책은 기독교 신비주의자였던 골드 스미스의 영적 자각의 체험담이었다.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살아왔는데 이 책을 보고 나니까 그거야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한게 있는 것 같어. 미처 생각 못한 거, 빠지는 데가 있는 게야. 건방지게도 알만큼 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 그게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단 말이지.”

이 책이 그에게는 그야말로 구도의 입문서가 되었던 셈이다. 그로 인해 그의 본격적인 구도 행각이 시작

된 것이다.

내면 세계로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을 이즈음, 그는 마산에 살고 있는 한 선배집 책장에서 다니구찌 마사하루(谷口雅春)의 <생명의 실상(生命の實相)>을 발견한다. 특이한 제목에 끌린 그는 그 책을 들춰보면서 '그래 맞아!' 하며 탄성을 질렀다.

폴드 스미스의 어록을 읽으면서 하나 둘씩 내면에서 솟구쳤던 물음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은 것 같았다. <생명의 실상>을 읽고 너무도 감동했던 그는 앞으로 이 책을 우리말로 옮겨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자신이 꼭해야만 할 일 이라고 생각했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자기보다 먼저 <생명의 실상>을 읽고 모임을 이끌고 있었던 이규대 선생(작고/광명 생활회 초대회장)을 만나게 됨으로써 이 책 전 40권의 번역작업에 몇몇 동지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대종출판사 왕한조 사장(작고)이 출판할 결심을 굳혔다. 그에게 큰 감명을 준 <생명의 실상> 초판이 나온 것은 1977년 10월 5일이었다. 이때부터 그는 독자들과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한 사람 두 사람 도반으로서의 인연을 맺어갔다. 당시 그의 길벗으로 첫째로 손꼽을 만한 분은 바로 한길로 대법사(작고)로, 그는 <육조 단경> 등 불교경전을 쉬운 우리말로 옮기거나 풀이한 장본인이다. 생전에 한결같이 밝게, 바르게, 착하게 살기를 일러준 한길로 법사는 생명의 실상의 진수를 불자들에게 설법을 통해 일깨워 주기 위해 힘썼던 분이였다.

취산이 번역작업을 하거나 생각을 정리할 일이 생겼을 때는 으레, 한길로 법사가 있는 봉인사(주지 적경 스님,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304 소재)로 훌쩍 달려가 법우(法友)로서의 우정을 돈독히 다져갔다. 이러한 인연으로 그의 아들인 적경 스님은 봉인사 경내에 그의 유골 일부가 안치된 부도를 세워 그의 뜻을 기리고 있다. 또한, 이 무렵 그는 <초인생활>을 처음 번역한 강홍수 목사(작고)와도 교분을 가졌다. 그리고 그는 통도사 조실 경봉(境峰) 스님을 친견했는데 그의 근기를 알아 본 스님은 '나와 함께 지내자.' 고 권유하면서 그의 새이름인 '翠山' 이란 법명을 지어주었다.

<생명의 실상>을 번역할 그 무렵 그는 리처드 바크(Richard Bach)의 <갈매기 조나단>, <환영> 등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이를 번역하여 '서문당'에서 문고판으로 펴내기도 했다.

그가 이 두 권의 책을 번역한 것은 그전에 이미 나온 번역판들이 너무 심할 정도로 오역이 된 것을 발견,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위해서였다. 그는 평소 그의 번역 실력을 과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정신과학 계통의 서적을 우리말로 정확히 옮기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을 토로하면서 후배 번역자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으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무엇의 이름을 짓는데 과히 명수(?)였다. 특히 원서에 나오는 정신세계의 용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는데 골몰했다. 룬상람파의 <제3의 눈(The third eye)>에 나오는 한 육신으로서의 영적 교체, 즉 work out, work in을 두고 나간다는 뜻으로 '두나이', 받는이라는 뜻으로 '바드이' 로 옮기는 기지(?)를 발휘하기도 했다.

TM(초월명상)을 만나다

필자가 취산을 처음 만난 것은 1979년 여름, 경기도 포천의 '산정호수'에서 3박4일간의 'TM 레지던스 코스'에 참가했을 때였다. 당시 회사원이었던 필자는 한 선배의 권유로 TM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코스가 전국의 TM명상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셈이었다. 그는 당시 취산이란 이름 대신 '박선

생님'으로 불리웠다. 흰 머리카락과 넓은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 부드러운 미소가 꺾이나 인상적이었다.

그는 TM의 창시자인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Maharishi Mahesh Yogi)'의 육성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 등 TM 관계 자료 등의 번역을 도맡아 하였으며, TM센터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TM에 심취해 있을 당시 그는 '마하리시'가 주석한 <바가바드 기타(Bagavad Gita)>를 손수 번역하여 많은 명상자들의 이해를 도와주었다.

TM코스를 마친 다음, 그와 나는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 만난 친구처럼 거의 매일을 함께 지냈다. 당시 서울 중심가에 있었던 필자가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 옆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기다리던 그는 언제나 빙그레 웃는 얼굴로 필자를 반겼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즐거웠다. 처음에는 주로 <생명의 실상>에 담긴 내용을 생활 속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그는 필자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그것을 풀이해 주었다. 필자와 그와의 인연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로 이어졌다. 특히 필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이철승씨(대흥기획 본부장 등)는 물론, 필자의 친구도 역시 그와 마음을 나누는 벗이 되었다.

필자와 그는 20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둘만의 사색이 아닌 자리에서는 한 번도 반말을 하는 법이 없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그의 성품도 그렇지만, 나이와 관계없이 그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는 한 걸을 가는 밝은 생활의 동반자로 대해 준 것이다.

그는 술과 담배를 즐겼다. 주량도 많았으나 한번도 자세가 흐트러진 적은 없었다. 필자도 그랬지만 함께 한 좌중의 젊은이들이 취해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는 오히려 그가 자리를 정리하고 부축을 해줄 때도 많았다. 전날 과음하여 모두가 녹초가 된 상태에서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홀로 자리에서 일어나 '감로의 법우'를 독송하고 명상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다.

밝은 생활사, <실상의 빛> 그리고 <보름마다의 편지>

그와 인연을 맺은 <생명의 실상> 독자와 TM 명상자 등 동지(同志)를 규합한(?) 그는 당시 구호였던 '대망의 80년대'에 들어와 뭔가 의미있는 정보를 담은 인쇄매체를 통한 만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필자를 비롯한 몇몇 가까운 벗들도 그를 주축으로 뭔가 여러 사람들과 대화의 장을 넓히는 방안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우선 <생명의 실상>에 관련된 정보라도 좀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을 느낀 그는 태종출판사 명의를 빌어 <실상(實相)의 빛>으로 이름한 무크 형태의 소책자를 엮어냈다. 그가 손수 꼼꼼이 정리한 자료들을 십시일반으로 발행비용을 마련, 한권씩 단행본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 첫호가 83년 7월에 나왔다. 순전히 그의 정성의 결실이었다.

호를 거듭할수록 내용도 더욱 다양화 되어갔다. 당시 무엇에도 치우치지 않은, '홀로서기'를 목표로 했던 이 땅의 구도자들은 그들에게 길잡이가 될 만한 최신 정보에 목말랐던 터라 <실상의 빛>은 가뭄 속의 단비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실상의 빛>은 2년 가까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기적으로 발간돼 나갔다.

책 만들기에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긴 그는 이제 본격적인 단행본 출판의 뜻을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출판사를 차려야 하는데, 자금도 문제였지만 서울에서 출판등록허가를 얻기가 당시로서는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실상의 빛> 발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던 오진은(아빠타 마스터)씨가 그의 명의로 경기도 안양에서 출판등록을 했다. 공식적인 '밝은 생활사'의 탄생이었다. 그는 밝은 생활사를 만든 뜻을 단행본 책머리에 이렇

게 밝혔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목숨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너요, 네가 곧 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알면 모두를 압니다.

나를 참으로 알 실마리를 드리고
나를 알아가는 길들을 보여드리고,
또 나를 안 이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리하여
나를 아는 길을 우리는 손잡고
함께 가자고 부추기기 위해

밝은 생활사는 있으며,

그 첫 실천으로
이 밝음총서를 펴냅니다.”

첫 번째 발간된 책은 다니구찌 마사하루의 <당신은 무한능력자>였다. 이어 와다시게마사(和田重正) <또 하나의 인간관>, 세 번째는 조지 미크(Georgew. Meek)가 지은 사후세계의 비밀을 밝힌 <삶 뒤에는(After we die, what then?)>, 그리고 네 번째 단행본은 1930년대에 티베트를 방문, 게쉬 림포체의 가르침을 받았던 스코트랜드 출신의 맥도날드 베인(Macdonald Bayne)의 체험기 <히말라야를 넘어서(Beyond the Hymalayas)>였는데, 이 책은 그가 1987년 미국에 이주하면서 <티베트 성자를 찾아서>로 제목을 바꿔 정신세계사에서 재출판되었다. 단행본 번역 원고의 운문이나 교정작업은 주로 필자가 맡았는데, 특히, <히말라야를 넘어서>는 많은 독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제목의 뉘앙스로 인해 서점에 꽂힌 이 책을 등산가이드 북으로 오인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대중매체를 통한 책 광고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어서 주로 구전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이 책의 진가를 안 어떤 독자들은 몇십권씩 책을 한꺼번에 구입, 이웃에 나눠주기도 했다. 밝은 생활사 명의로 출판된지 20년 가까이 된 작년 어느 날 지방의 성직자 한 분이 친척의 책꽂이에 꽂힌 이 책을 읽고 크게 감명받았으며 필자에게 대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 무렵 그는 영등포 당산동의 조그만 아파트에서 중·고생이던 두 딸과 함께 살았다. 그 집이 출판사 사무실인 동시에 밝은 생활사 동지들의 아지트였다. 이렇게 몇 권의 단행본과 함께 <실상의 빛>을 내던 그는 전국 각지의 밝은 생활사 독자들의 확산을 목표로 <실상의 빛> 간행을 중단하고 대신 좀 더 다양한 정보를 담은 소식지로 옮겨 갈 결심을 하게 된다. 요즘처럼 컴퓨터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시기인지라 소식지 형태의 정기 간행물을 제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손수 자필로 써서라도 소식지를 내야겠다고 결심한 그는 어느 분의 도움으로 당시에는 아주 귀한 '워드프로세서' 한 대를 확보하여 <보름마다의 편지>라는 이름의 소식지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85년 7월이었다. 당시 워드프로세서 작업은 문광주씨(중등교사)가 자원했다. 외형

상으론 그야말로 보잘 것 없는 소책자였지만, 이웃사랑을 위한 그의 정성과 숨결이 배어 지금도 그의 체취를 느낄 수 있다. 보름마다의 편지는 1년 3개월 동안 보름마다 한 번씩 매월 두차례씩 전국의 천명 가까운 독자 회원을 찾아갔다. 도서출판 밝은 생활사는 <보름마다의 편지>로 인해 전국적으로 명실공히 '밝은 생활인'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특히 전주 지역에는 박양규씨(아빠타 마스터)를 중심으로 밝은 생활사 지부가 만들어졌다.

그는 <보름마다의 편지>에 답을 기사를 모으기 위해 전국을 답사하면서 숨은 도인(?)을 찾기 시작했다. 필자의 기억에 떠오르는 당시 그가 발굴해 <보름마다의 편지>에 기사화한 주인공은 천부경 연구가 최재충 씨를 비롯, 영능력자인 하기와라 이쓰에(전 경기도 교수), 보기만 해도 병이 낫는 다는 정읍 할머니로 불린 최영단 여사, 우주 메시지를 부호로 받아적는 능력과 약초를 채취해 불사약을 만든 명일동 할머니, 전각가(篆刻家)인 고산자 노인, 신지학(神智學)과 카발라 등을 소개한 이일우씨(작고), 그리고 '뽀선생'으로 불린 장규상씨 등이다. 특히 장규상씨(작고)를 처음 만난 후 그는 '한국의 크리스나무르티'라며 그에게 큰 관심을 가졌다.

‘뽀선생’ 장규상씨와의 만남

그가 장규상씨를 처음 만난 것은 한길로 법사의 전언에 의해서였다. 한길로 법사는 모 종교단체가 발간하는 타블로이드판 주간신문의 연재물 <기인열전>에 등장한 '뽀선생'을 봉인사에 초대했던 일이 있는 후 그를 취산에게 소개했던 것이다.

서울 방배동의 뽀선생 거처를 알아낸 취산은 필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뽀선생과의 대담기사를 치우침없이 써보라고 했다. 미내사 회원지 <지금여기>의 편집방향도 그렇듯이, 취산은 <보름마다의 편지>에서도 '치우침 없는 관찰자'의 자세를 견지했다. 다양한 신념의 전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한소식'을 알리는 사랑의 메신저로서의 구실을 다하려 노력했다. 그와 뽀선생과의 만남은 필자 개인 삶의 한 획을 긋는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지게 된 셈이다. 상투를 틀고 수염을 기른 채 첼로를 연주하는 '구령 음악가'의 꼬리표가 붙여진 뽀선생을 처음 만났을 때 필자가 받은 인상은 그야말로 '외계의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란 수인사가 끝나면 그는 조용히 그의 첼로 독주회에 초대했다. 그의 집 안방이었다. 남매 인기가수였던 '현이와 덕이'의 아버지였던 뽀선생은 그의 첼로를 들으면 귀신의 한도 풀어진다는 평을 받았던 구령음악가, 뽀과학자 등으로 불려진 신비한 인물이었다. 그의 첼로 연주에 매료된 필자는 그날 이후부터 몇 개월 동안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뽀선생과의 만남을 가졌다. 인터뷰는 뒷전으로 밀쳐진 채 아무런 대화없이 그가 뽀어내는 '뽀의 울림' 속으로 잠겨들었다.

이런 까닭으로 취산을 비롯한 밝은 생활사 멤버들과 필자의 만남은 뜸해질 수밖에 없었다. 3개월간의 예비 탐험을 통해 '뽀'의 세계에 대한 나름대로 감을 잡은 필자는 밝은 생활사 회원들에게도 글로써가 아닌 모두가 뽀선생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제공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취산의 의중을 타진했는데 그도 그것이 좋겠다고 했다.

우선, 뽀 연주회와 카세트 테이프를 제작할 것을 계획했다. 여의도의 모 백화점 개관에 맞춰 그곳을 연주 장소로 정해 회원들을 초대했다. 연주회는 성황이었다. 청중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의 첼로 울림과 하나가 되었다. 이어 밝은 생활사 전주지역 모임의 회원들을 위해 그 이듬해 전주에서 열린 연주회도 성황을 이루었다.

새애인처럼 뽀선생에게 깊이 빠져든 필자는 '뽀' 외의 다른 일들에는 차츰 흥미를 잃어갔다. 하루도 만나지 않으면 좀이 쑤실 정도였던 취산과의 만남도 그렇고, 나아가 <보름마다의 편지>를 내는 일 따위가 '부질없는 일'로 여겨지지 시작했다. 밝은 생활사의 골수 멤버들까지도 필자의 기울음에 편승했다. 또한 필자는 뽀 선생을 만나러 온 새로운 사람들과도 교분을 갖기 시작했다. 뽀의 세계를 본격 탐사할 결심을 굳힌 필자는 첫 아세안 게임이 열렸던 86년 가을 어느날 취산에게 보낼 편지를 썼다. 내용은 그동안의 뽀세계 탐구에서 느꼈던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문을 닫자'는 사실상 취산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절교 편지였다. 취산 역시 그 무렵엔 책 만들고 모임하는 분주한 일상에 염증을 느끼는 듯한, 좀 쉬고 싶은 눈치였다. 필자의 편지를 받고 한동안 소식이 없던 그는 이 편지를 <보름마다의 편지> 마지막 호에 그대로 싣고 <보름마다의 편지>를 15개월 만에 마감지었다.

"앵무새처럼 남의 소리만 열심히 옮겼던 게야. 정작 취산한테 남은 것이 뭐이가. 아무것도 없지. 그걸 알게 됐을 때는 너무 부끄러워서 대낮에 얼굴을 들고 밖에 나가기조차 싫었더랬어."

그는 당시의 심정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그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아내의 요청에 따라 미국으로 떠날 결심을 굳혔다.

"미국에 갈때는 이제 다 그만 두자. 지금까지 취산이 해온게 모조리 주책만 떨어진 거로구나 했더랬지. 많은 사람들을 헤매게만 한거야. 뭔가 있겠지 하고 허둥지둥 찾아 다니기만 했으니 얼마나 못살게 군거이가. 말쑥 헛짓이거든. 그러고 다녀봐야 손에 쥐어지는게 없어. 헛꿈만 찾아다닌 거지.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 헛꿈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정성을, 존경을, 충성을 바치지 않아. 몹쓸 짓이랴구."

1천명 가까운 전국의 <보름마다의 편지>독자들에게 작별의 편지를 남기고 미국행을 결심한 그는 출국하기 직전 몇 개월 동안 전북 정읍으로 내려가 차(茶)농사를 지으며 그가 염원했던 농부의 삶을 살아갔다. 미국행 비자가 나오자 그는 그의 표현대로 도망치듯 미국으로 날아갔다. 87년의 일이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그는 가족과 조그만 세탁소를 운영했다. 그의 아내의 노력으로 워싱턴 교외에 아담한 집도 마련했다.

그와의 만남을 일단 마감지은 필자는 뽀선생과의 만남이 더욱 깊어지면서 뽀세계 탐구에 몰두했다. 필자는 몇몇 벗들과 서울 세검정에 뽀안내를 위한 뽀선생의 거처를 마련했다. 뽀선생을 스승처럼 모시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필자는 서울 올림픽이 열린 88년까지 3년동안 취산이 없는 가운데 뽀선생과의 밀회를 즐기게 됐다. 그의 그림자로서의 생활은 3년여동안 지속되었다. 88년 올림픽이 끝난 어느날, 이제 홀로서기 준비가 완료됐다고 믿은 그 무렵 필자는 뽀선생과도 이제 결별할 때가 왔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취산이 미국으로 떠날 때와 같은 심정이 된 것이었다. 그동안은 그와는 별 연락을 취하지 않았는데 이따금 그에 대한 그리움이 밀물처럼 간헐적으로 필자의 마음속에 스며들기도 했다.

우선 그를 보고 싶었다. 90년 여름, 필자는 밝은 생활사 시절부터 고락을 함께해온 고병민씨(전 금비문화사 대표)와 함께 취산을 방문하기로 하고 뉴욕으로 날아갔다. 9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에서 그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꿈만 같았다. 모든 것을 놓아 버리고 평생 처음으로 가장(家長)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였지만, 미국 생활 속에서도 그의 탐구 의욕은 조금도 식지 않은 것 같았다. 정신세계의 정보수집에 그의 주의를 늘 쏠려 있었다. 필자의 미국행은 취산과의 재회의 신호였다. 필자 역시 취산과는 좀더 풀어야 할 매듭이 남아 있는 것 같았다. 몇권의 책을 사들고 돌아온 필자는 취산과의 재회로 뭔가 새로운 신나는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암에 걸린 취산, 아바타를 만나다

미국에서 돌아와 오직 직장 생활에만 전념했던 필자는 어느날 동행했던 고병민 씨로부터 취산의 신변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다고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궁금증을 간직한 채 필자는 청계산 입구에서 해질 무렵 그를 만났다. '전립선 암'이 발병하여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미국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그에게만 말해준 것이었다. 푸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비보였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를 살려내자고 둘은 굳게 다짐했다. 미국에서 그와 함께한 시간의 영상이 스쳐갔다. 필자는 즉시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했으나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면서 필자를 안심시켰다. '병은 없다'고 늘상 강조했던 그였기에, 그의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의지를 신뢰한 필자는 그가 능히 그것을 극복해 낼 것으로 믿으면서도, 마음속엔 이따금 걱정이 드리워지곤 했다. 그런 가운데 그해 90년 말, 드디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해봐야 할 진짜를 발견했다."며 필자에게 <창조학(Creativism)>이란 이름의 책 한권을 보내주면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지금은 <뜻대로 살기>로 제목이 바뀐, 아바타 프로그램(Avater program)의 소개서였다. 그는 자기 몸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눈치였다. 필자는 이 책을 여러권 복사하여 주변의 벗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검토해 보자고 제의했다.

해가 바뀔(91년) 그 즈음 그는 워싱턴에서 열린 아바타 코스에 한국인 최초로 참가했다. 아바타 코스를 마친 그는 당시의 감격을 이렇게 글로 표현했다.

"미국으로 가서 살기 5년만에 아바타를 만났다.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절망하고 난 다음 순간의 만남이었다. 또 그저 그렇겠지 하는 심정으로 대외비 교재 몇 줄을 읽다가 나는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아아 부처가 미국에 와 있었구나!

어설뜨기는 했으나 꽤 길었던 나의 구도는 저기가 끝이었다. 더 찾을 것은 없는 것이다. 이제는 그저 갈 뿐, 신나게 끊임없는 변화만이 절대적 향상인 것을 다 알면서들...

내가 금생에 내 나라 내 형제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줄 수 있다니, 이진 그야말로 부처의 자비, 하느님의 은총이다. 고맙습니다. 이미 해탈해 있는 나...너...그를 일깨워 주는 당신은 누구? 있는 것은 누구인가?"

그의 아바타 코스 체험담에 고무된 필자와 벗들은 하루 빨리 아바타 코스에 참가, 취산과 같은 경험을 하고 싶었다. 서둘러 미국에서 <창조학>을 번역한 그는 출판을 서둘렀다. 출판은 언제나 취산을 묵묵히 도왔던 고병민 씨가 맡기로 했다.

당장 미국에 달려가 코스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기다리고 있던 중 그로부터 연락이 왔다. '92년 10월에 미국인 아바타 마스터(Richard Westlake)가 휴가를 얻어 한국 용평에서 9박 10일의 일정으로 합숙 코스를 열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이 코스에 참가한 사람은 필자를 비롯, 고병민씨, 오진은씨, 박찬역씨, 박양규씨, 남기조씨, 고상근씨 등 7명이었다. 모두가 밝은 생활사 때부터 그와 인연을 맺은 벗들이었다. 이 코스 참가자 중 필자와 고병민씨, 오진은씨는 이듬해 3월 미국에서 열린 아바타 마스터 코스에도 취산과 참가했다.

아바타 프로그램 전 교재를 번역한 그는 그 해 네델란드에서 열린 프로페셔널 마스터 코스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서 네델란드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몸 상태가 급속히 나빠져 네델란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한국에서 열리는 첫 아바타 코스를 서울대학교 호암 생활관에서 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은 터

라 이곳 벼들은 모두 그가 빨리 귀국하여 휴식을 취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는 수척한 얼굴로 엄습해 오는 통증을 그야말로 초인적으로 참아내고 있었다. 고병민씨의 정성으로 어렵게 구한 약은 어쩔 수 없이 복용하였으나, 병원 진찰은 한사코 거부했다. 설득 끝에 박양규씨의 주선으로 전주대학병원에 며칠 입원하여 진찰을 해본 결과, 이 상태로는 2개월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다고 담당의사는 필자에게 이렇게 귀뜸해 주었다. 이 말을 전해 듣고도 그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지 뭐.' 하며 퇴원을 재촉하기만 했다. 외상이 심해 거동마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서울로 돌아온 그를 필자는 간곡히 설득했다. 우선 외상의 염증이라도 치료해야겠다고 결심한 그는 필자의 주선으로 동대문의 이화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했다. 그 병원 담당과장은 그를 진찰한 결과 그에게 '알만한 분이 어떻게 이지경이 되도록 몸을 혹사할 수 있느냐?'며 우선 외과적 수술만이라도 하고 입원 치료를 해보자고 권했다. 그는 씩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소변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을 허용했다. 어렵게 수술을 마친 그는 수술부위가 아물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다. 고통을 견디는데 그야말로 이골이 난 그였지만, 야월대로 야원 그의 모습은 문병온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수술 후 3일 째 되던 날 그는 심심할 때 읽어볼 거리로 침상 옆에 놓여 있던 무우 등 몇가지 근채식물로 처방된 식이요법에 관한 소책자를 훑어보다가 이것 참 재미있는 방법이라며 그것에 관심을 가졌다. 만드는 방법도 손쉬워 그는 이 무우스프를 만들어 마셔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무우스프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마신지 3일째 되는 날부터 입맛이 당기기 시작했다. 그때는 수술상처도 이미 아문 상태였다. 그 전부터 병원에서 주는 항생제를 밀쳐낸 그는 이 스프를 마시면서 왕성한 식욕이 생기고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어 갔다. 20여일 정도 입원해 있으면서 입원할 당시 50kg에도 미치지 못한 체중이 70kg정도 늘어났으니 말이다. 퇴원할 무렵에는 환자티는 찾아볼래야 볼 수도 없었다. 담당의사가 더욱 놀랐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았으나 암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입원한 당시에는 전립선 암이 간과 임파선에도 전이되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미내사 클럽을 만든다

건강을 회복하자 그는 아봐타 프로그램의 보급에 앞장섰다. 아봐타 마스터의 수도 날로 늘어나 전국 각지에서 아봐타 코스가 열렸다. 그는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마스터 코스'를 개최할 때가 됐다고 보고 이 프로그램 개발사인 스타에지(Star's Edge)사에 건의했다.

그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96년 5월,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아봐타 마스터 코스가 열렸다.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각국의 아봐타들이 이 코스에 참가했다. 앞서 그는 우리 나라에서 활동하던 일본인들과 인연이 닿아 일본에서도 일본인을 대상으로 아봐타 코스를 여는 한편, 중국에까지 출장, 미국 마스터와 함께 아봐타 코스를 안내하는 등 아봐타의 보급 확산에 열성을 다했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 아봐타 코스를 순회하면서 후배 마스터들을 독려하거나 미국 자택을 오가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서울에 와 있을 때 주로 일산에 있는 박종대 문광주씨 집에 머물렀다.

95년 미국에서 머물다 돌아온 그는 필자에게 이제 아봐타 프로그램도 많이 보급이 됐으니 새로운 영성의 시대를 개화시키기 위한 첨단 정신과학, 신과학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모두가 동참하는 뜻있는 일을 해보자고 제의했다. 미국에 있는 동안 그는 이미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워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 '밝은 생활사' 마무리 사업으로 그것을 의도한 그는 이 일이 자신의 마지막 일임을 강조하면서 필자를 비롯

한 몇몇에게 협력을 구했다.

그의 계획은 <보름마다의 편지>를 발전시킨 형태의 저널을 만들어 복클럽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미내사 회원들을 위한 국제적인 정보교류를 위한 행사를 갖자는 것이 골자였다. 그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처음에는 그의 제의를 완곡히 거절했다. 이유는 당시 이미 정신과학학회가 발족된 터인데다 '책을 만드는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필자로서는 번거로운 일로 여겨져 직접 관여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는 필자와 같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주변의 벗들을 차례로 설득하다 모두가 소극적인 반응임을 알고 필자의 결심을 다그쳤다. 모든 것은 자기가 할테니 '긋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는 식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주변의 몇몇 벗들이 자금을 분담하고 필자의 사무실을 넓혀 이전하여 사무실 한쪽을 미내사 클럽 <지금여기> 편집실로 꾸몄다. 정기간행물이기엔 필자 명의로 발행 등록을 마치고 <지금여기> 첫호가 1996년 1월 1일자로 출간됐다. 창간호의 디자인을 외부에 의뢰하고 몇몇 전문가들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하여 그들의 보유자료와 그가 보유한 자료를 주로 번역하여 원고를 만들었다.

그는 창간호를 통해 '일방적인 심경의 변화로 재회를 약속하며 마감해 버린 <보름마다의 편지>를 10년이 지난 이제서야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옛 독자들에게 소이를 전하면서 창간의 의도를 이렇게 밝혔다.

"(전략) 이 채널은 이제 부터 모이게 되는 사람들 사이를 이어나가며, 모인 사람들의 생각과 소식들을, 그리고 이웃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하기 그지없는 생각, 신념, 의도들을 전해주고 보여주기에 힘쓸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쉽게 지어내질 수도, 지워질 수도 있는 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일체 상황이 신념, 곧 생각의 나타남일 진대, 자기의 생각을 스스로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것은 저절로 시간의 흐름 위에 고운 무늬로 새겨나갈 것입니다.(하락)"

그는 미국을 오가며 <지금여기>의 기사 자료를 취합, 번역하는데 동분서주했다. 독자 회원수도 조금씩 늘어났다. 그러나 광고수입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록 격월간이었지만 간행작업 과정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는 원고작업을 마무리 해놓고는 정성채씨(한의사)를 비롯한 미내사 발기인들을 찾아가 발행경비를 지원받곤 했다. 어렵게 일년이 지나갈 무렵 그는 '국제 신과학 심포지엄'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는 일을 벌이는데 그야말로 선수였다. 필자는 늘 그가 정말 풍부한 상상력의 소유자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든 사심만 없으면 어떤 일도 실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신과학 심포지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아울러 경비 지원을 위한 신과학 진흥회(회장: 윤석모)가 만들어졌다. 이로써 아주대학에서 열린 제1회 국제 신과학 심포지엄은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임의 단체가, 더욱이 신과학을 주제로 이런 규모의 국제 행사를 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있는 일이었다. 언론매체 특히 방송들이 앞다투어 취재보도를 했지만, 이 행사를 여는 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에 그들의 인식은 그야말로 턱없이 모자랐다. 그러나, 이 행사의 참가자들은 새 시대가 열리는 증좌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미내사 클럽의 운영에 정열을 바치는 가운데 그는 입수한 신과학 정보 가운데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분야의 획기적 과학기술을 발굴하여 이를 국내에 소개하고 도입하는 일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의 중국 출신 장 칸첸 박사의 '생체전자장' 기술도입 제의를 받은 그는 장 칸첸 박사의 연구실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도입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실현 가능성을 확신한 그는 귀국하자마자 그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확보한 자료들을 챙겨 그와 가까운 벗들에게 그것을 브리핑하면서 이 기술을 도입, 사업화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 기술 도입에 따른 사업성에 불확실성이 많아 그의 제의를 선뜻 받

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이즈음 그는 몸의 컨디션이 예전 같지가 않았다. 처음엔 그도 과로로 인해 피로가 쌓여 그러려니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예전에 느꼈던 통증이 다시 엄습하는 듯했다. 서울 수운회관에서 장 칸첸 박사의 강연회를 열어 놓고 현장에서 좀 쉬어야 겠다며 슬쩍 자리를 뜨는 그를 보면서 필자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다시 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알았지만 암을 이겼던 그였기에 주변 사람들은 또 회복하리라고 믿고 있었다.

건강이 나빠지자 그는 미국에 들어가 요양을 하면서 회복을 꾀했으나 점점 악화되기만 했다. 그는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둘째 딸 지은 내외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수개월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시달려야 했다. 처음 그가 암에 걸렸을 때의 고통을 지켜본 필자로서는 그동안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가끔 필자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어떤 땐 금방이라도 뿔뿔한 기운찬 목소리가 들릴 때는 저으기 안심이 되었지만, 기진맥진한 목소리가 될 땐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곳에 있는 그의 벗들은 한결같이 그의 쾌유를 빌며 건강한 모습으로 재회할 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겨우 기력을 차린 그는 그가 제1회 신과학 심포지엄 직전에 인연을 맺은 강신무씨의 적극적인 권유로 강씨의 모친이 계신 무주 구천동집에서 요양하게 되었다.

늘 정신은 말짱했지만 그의 몸은 지칠대로 지쳐 있었다. 그의 쾌유를 위해 강신무씨는 백일 목표를 정하고 온갖 정성을 다 바쳤다. 이 지면을 빌어 강신무씨의 모친과 그의 수족이 되어준 선인문 가족들에게 대신 깊은 감사를 표한다. 필자가 그곳에서 그를 만났을 때는 기력이 많이 되살아나 주변을 산책할 정도로 증세가 호전되어 안심이 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극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그후 경기도 광주의 한 곳으로 잠시 거처를 옮겼다가 다시 전주의 한마음 병원으로 옮겨졌다. 짐작컨대, 그는 병원에 내려갈 당시 이미 이생을 마감할 결심을 한 듯하다. 그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박양규씨, 김용우씨, 박영희씨, 박노신씨 등 전주에 있는 그의 젊은 벗들이 그를 보살펴 주었다. 어느 벗의 말처럼 그는 '돈 복 빼고는 모든 복을 타고난' 그런 사람이었다. 그가 가는 곳 어디에나 그와 시간을 함께 하는 친구가 늘상 옆에 있어 주었으니 말이다.

그가 이렇게 몸져 누웠던 관계로 그는 작년에 개최된 제2회 신과학 심포지엄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이번 열린 제3회 심포지엄은 그가 눈을 감은지 불과 며칠 후에 개최됐다. 필자가 대신 개최 선언을 하면서 심포지엄 참가자 모두는 제1회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했던 그의 영상을 보면서 이 행사를 만든 그의 뜻을 함께 되새겨 볼 기회를 가졌다. 인사말을 마치고 무대를 떠나는 그의 뒷모습처럼 그는 이 세상도 그렇게 홀연히 떠나 버린 것이다.

그의 이웃사랑의 순수한 뜻으로 세워진 미내사 클럽은 회원들의 숨은 지원에 힘입어 운영되고 있다. 큰 족적을 남긴 그와의 이 생에서의 작별은 그와 늘 함께 했던 필자로서는 다른 차원에서의 새로운 만남을 위한 기회로 알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앞장서 뿌린 사랑의 씨앗을 지금 여기에서 늘 그와 함께하는 우리들이 풍성한 수확을 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그를 대신하여 미내사의 어려운 살림을 묵묵히 꾸려나가는 이원규씨를 비롯한 미내사 실무진들에게 격려와 성원을 보낸다.

지금여기, 늘 푸른 모습 그대로 있는 푸른 뽕 翠山과 함께 하면서...

